

## 원희룡 장관, “힘센 충남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협력” - 21일 충남도청 찾아 현안회의 공동개최, 균형발전 전략 제시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1일 오후 4시 30분 충남도청을 찾아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충남발전 현안회의를 공동개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현안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.
  -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북부권 Bay-Valley 산업벨트, 서해안 해양레저 관광벨트, 내포신도시, 내륙권 백제문화 관광도시, 국방특화 클러스터 등 5개 권역별 발전전략을 소개하였으며,
  -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, 서해선-경부고속선 연결사업 등 7가지 현안을 공유하고 국토교통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하였다.
-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“국토 불균형에 따른 저출산과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전략이 절실한 상황”이라면서,
  - “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인 거점과 교통망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지역과 긴밀히 호흡하면서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을 지원”하겠다고 밝혔다.
  - 또한, 충남에 대해서는 “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가교이자 자동차,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기반과 자연·문화 관광자원을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”한다면서,
  - “충남이 구상하는 5개 권역 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편, 동서축 교통망, 산단 조성 등 충남이 제안한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2022. 11. 21.

국토교통부 대변인